

우리 아이 쉽게 약 먹이기

www.babydoctor.co.kr

물약을 먹일 때

시럽제는 영유아가 먹기 쉽도록 단맛이 나게 만들어졌지만 아이가 잘 먹지 않을 때는 기관지에 물약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이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입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서 먹인다.

1회 복용량을 계량컵으로 재서 먹이고 약병이 입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.

시럽의 경우 아이가 맛있다고 자꾸 먹으려 할 수 있어서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(냉장고) 등에 보관한다.

다른 약과 혼합하여 보관할 경우 변화되므로 별도로 보관했다가 복용할 때 먹인다.

가루약을 먹일 때

가루약 먹이기 어려울 때 아주 소량의 미지근한 물에 녹여서 먹이거나 설탕물, 잼 등에 섞어서 먹이면 된다.

단, 꿀은 돌이전에는 먹여서는 안된다. 약을 개서 엄마의 손가락 끝에 붙여 볼안쪽에 문질러 바르고 미지근한 물이나 주스 등을 먹이는 방법도 있다.

분유에 타서 먹이면 아기의 입맛이 변할 수 있고 약을 타지 않는 분유는 먹지 않을 수 있다. 또한, 약이 녹지 않아 젖꼭지가 막히는 경우도 있어서 좋지 않다.

알약(정제)을 먹일 때

알약을 먹이면 물만 삼키고 알약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약을 혀의 2/3 안쪽에 놓으면 아이가 잘 삼킨다.

알약을 무리하게 먹이면 질식할 염려가 있으므로 3~4세가 되면 알약이나 캡셀로 된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. 알약을 갈아서 먹이는 방법도 있지만 너무 써서 특별히 알약으로 만든 것도 있으므로 이럴 때는 소아과 의사에게 문의하도록 한다.

좌약을 사용할 때

좌약은 입으로 먹기 어렵거나 위액에 분해되기 쉬운 경우 만들어진다. 아이가 좌약을 먹지 않도록 주의하고 앞의 뾰족한 쪽부터 항문에 깊이 넣고 잠시(4~5초 정도) 누른다. 약의 1/2만 쓸 때는 칼 등으로 경사지게 자르고 날카로운 부분은 등글게 다듬어주어 따뜻하게 해서 사용한다. 좌약이 단단하지 않으면 포장 그대로 냉장고에 넣었다가 사용한다.

해열제 중 좌약이 많은데 38도 4분 이상의 고열에 사용하며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시간 간격없이 자주 넣지 말고 적어도 4~6시간 지나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좋다. 